

# 발효개발실

(주) 중앙케미칼

□ 취재 : 함경숙 기자

우리는 대우, 삼성, 현대그룹 등의 대기업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대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어렵풋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기업들을 세계 굴지로 성장, 부상할 수 있도록 한 숨어있는 부서와 부서구성원을 안다는 것은 당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알기는 힘들 것이다.

어떤 인물들이 모여 어떻게 활

동했기에 그렇게 만들었는가를 파악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들테면 튼튼한 나무가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었음을 알지 못하는 이치라 하겠다.

우리 축산업계에서도 제각기 특성을 지닌 이름난 숲이 많은데 이를 구성하고 있는 나무들이 어떻게 숲을 가꾸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예를 들어 동물약품업계의 경우

## 1백만불 수출탑 수상의 산파역할을 거뜰히 해낸 관찰주의자들



만 하더라도 지난 제2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주)중앙케미칼(대표 김부진).

그중에서도 이번과 같은 영광의 순간을 맛볼 수 있도록 직접적인 산과역할을 톡톡히 해 낸 '발효개발실'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안산공장 단지내에 위치한 발효개발실은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던 지난 84년에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은 85년.

동물약품 업계의 미래를 예측하여 협소한 국내시장 보다는 세계 시장을 겨냥, 이를 위해서는 기술 축적과 신제품 개발만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선견지명(?)이 발효개발실을 태동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제조·생산을 담당하는 8명과 연구원 6명 등 총 14명의 구성원들이 신제품 개발 및 제품향상, 완벽한 생산을 위해 각자 맡



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회사 전체에 대한 기여도는 88년에 약 8%인데 89년에는 12%로 신장시키겠다는 각오로 팀장인 변옥섭 차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관찰하자’.

이는 발효개발실의 캐치프레이즈로 관찰을 통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또 커다란 성과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변차장은 강조

한다.

공장 내부를 자세히 둘러본 후 발효개발실에 들어서자 누룩 비슷한 냄새가 그득했고 방안공기는 약간 덥게 느껴졌다.

신제품 개발을 위주로 연구하는 팀과 이미 생산·시판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팀으로 구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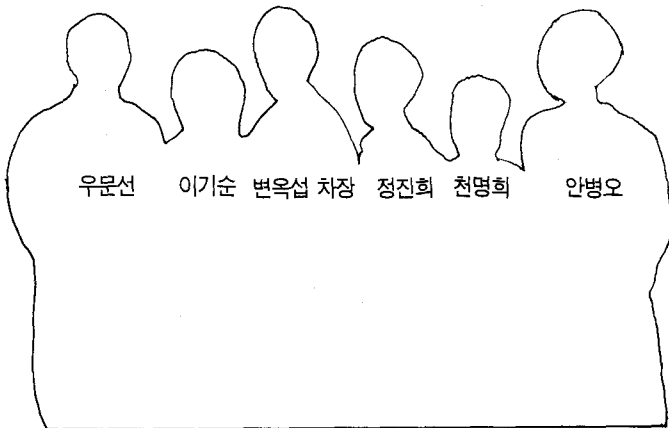
“미생물은 영양면이나 온도조절 등이 무척 까다롭고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기 때문에 마치 어린 아이를 다룰 때와 비슷한 마음이 짐이 필요합니다.”

이는 발효개발실 구성원의 한결 같은 목소리이다.

그래서인지 팀장인 변옥섭 차장 외에 우문선씨를 제외한 5명의 직원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창립멤버로 근무한 지 4년된 천명희씨를 비롯하여 화학을 전공한 노처녀 아닌 노처녀(?) 이기순씨,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안병오, 그리고 입사 8개월째인 막내 정진희양이 매일 얼굴을 맞대며 하루하루를 엮어가고 있다.

겨울에는 따뜻한 공간으로 모든 직원들이 부러워하는 곳이 이곳 발효개발실이지만 여름에는 극성스러운 땀때 때문에 끈적스러운 곳이며 반팔 옷을 입기가 곤란할 정도로 각 기기에 텐 곳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성들은 무언의 항변을 은근히 털어 놓기도.



화공학을 전공했고 미생물을 연구한지 23년된 베테랑으로 발효개발실 탄생과 동시에 입사, 「이스트컬취」를 개발하는데 주역이었던 변옥섭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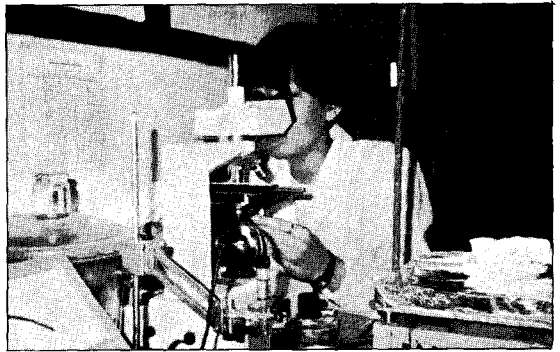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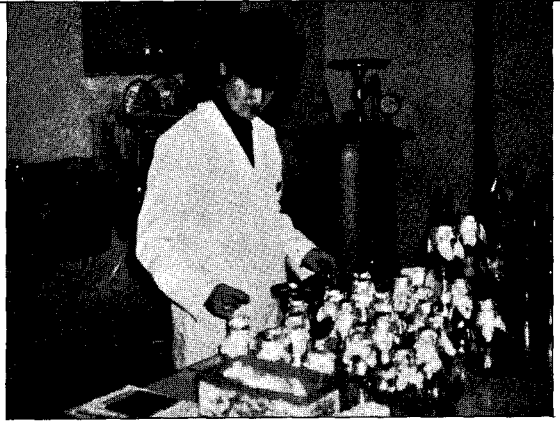
그는 2천년대의 축산업계, 아니 동물약품업계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현재 안고 있는 모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앞으로는 동물약품업계도 상호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축적,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한 고유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동시에 이에 대한 조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것에 대한 불신풍조,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이 연구, 개발되었을 때 업계나 관공서에서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외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아직도 짙게 깔려 있는데 이에 대한 자각 및 지양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스트컬취」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지원을 받아 1백%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이스트컬취는 생발효 배양물로 대사성 질병예방은 물론 성장촉진, 사료효율개선, 유지율 향상 등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발당시 생산능력 월1백억톤에 해당하는 설비를 도입,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 부족한 실정으로 생산설비의 추가 도입, 증설을 서두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중소기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연구비 지급비율이 다른 업체에 비해 많은 것이 중앙케미칼이 총 매출액면에서 랭킹2위를 차지하고 1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게 된 계기였다는게 잘 아는 사람들의 평이다.

연간 총 매출액은 80억.

이중 0.3%수준인 2억4천만원이 신제품 개발 등 연구투자비에 투입되고 있다.

비타민, 유기산 등을 분석하는 HPLC, 항생제역가시험기 등은 동물약품업계에서는 최초로 구입,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HPLC는 각 사료공장에서도 성분분석의 퇴가 들어올 정도로 그 비중은 무척 크다고 한다.

지난 1983년 9월 「E-마이신」을

말레이시아에 처녀 수출하기 시작, 이제는 비타민E 50%, 나이아신, 나이아신A, 이스트컬취-100, 몰드킬러, 퍼마졸-500, 싸이퍼-킬러, 메토믹스플러스, 설파디메톡신 소디움 등 20여품목에 이른다.

국내 동물약품 시장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부지런히 뛰고 있는 중앙케미칼.

사료첨가제인 발효생균효모제 이스트컬취를 주로 생산하는 발효개발과는 오늘도 부지런히 현미경을 빗삼아 플라스크속의 배지가 좋은 조건을 형성, 좀 더 많은 효력을 낼 수 있도록 초롱초롱한 눈을 뜨고 있다. **양기**